

# 참사람 36.5°C

2022년 3월 | Monthly | 발행처 교보교육재단 Tel. 02-925-8925



# CONTENTS 목차

## 발행일

2022년 3월 3일 목요일  
Monthly

## 발행처

교보교육재단  
Tel. 02-925-8925

## 교보교육재단 공식 홈페이지

kbedu.or.kr

## 참사람 36.5°C 온라인 소식지

chamsaram.org



## Cover Story

봄이 오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입니다. 그동안 익숙했던 것들을 뒤로하고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새로운 출발선에 선 모두에게 찬란한 하루하루가 펼쳐지길 바랍니다.



## 04

참사람을 말하다  
〈새 학기 다짐〉  
공부와 건강을 다 챙기는 실천  
- 아침밥 챙겨 먹기



## 06

내가 만난 참사람 \_ 에세이  
당신도 누군가의 영웅입니다  
글 \_ 참사람 독자 박성민



08

책으로, 참사람으로

살기 위해 개를 훔칠 수 밖에  
없었던 어린이, 조지나에게  
글 \_ 고봉중고등학교 김OO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은  
어떤 책?

글 \_ 우신영  
인천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소설가



10

참사람 인터뷰

청소년의 삶에 별이 된 사람  
성장학교 별 김현수 교장



12

품생품사

눈이 녹으면  
글/그림 \_ 정용욱



16

품생품사

청소년 그림 공모전  
‘인생 한 컷’ 당선작



15

교보교육재단 소식

2022년  
교보생명 희망다솜 장학생  
면접심사 현장 스케치  
‘톡!톡!톡!(talk) 가족소통캠프’  
참가가족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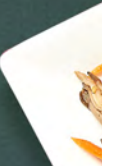
## <새 학기 다짐>

공부와 건강을 다 챙기는 실천

아	침	밥	챙	겨	먹	기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3월입니다. 긴 겨울방학 동안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이제라도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겠지요. 그렇다면,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큰 걱정거리일까요?

작년 한 교복업체에서 청소년 1,756명을 대상으로 새해에 이루고 싶은 소망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다이어트 및 건강관리(27.8%, 489명)가 가장 많았고, 이후 성적향상(27.1%, 476명), 진로 구체화(23.5%, 412명)가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설문문의 답변에서 대학입시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는 청소년 여러분의 고민과 긴장이 느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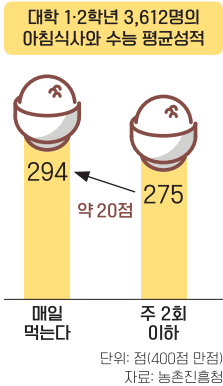


### 새해소망을 위한 작은 실천 아침밥 먹기

자신의 꿈을 향해 정진하는 청소년 여러분 모두, 2022년 새로운 학년을 슬기롭고 보람차게 보내기 위해 저마다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적향상을 위해 공부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운동을 시작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학업증진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얼핏 듣기에는 참 쉬운 방법인데, 한편으로는 참 지켜지지 않는 일, 바로 아침을 먹는 것입니다.

의외로 우리 청소년들이 아침을 잘 챙겨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육부의 2019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 통계를 보면 고등학생 21.6%, 중학생 17.65%가 아침을 거르고 있다고 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5명 중에 1명은 아침을 거른다는 이야기인데요. 아마도 많은 청소년들이 부족한 잠을 보충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아침 식사 대신 잠을 선택하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아침 식사를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아침밥의 효과



첫 번째는 바로 집중력과 학습능력 향상입니다. 생체시계를 조절하는 핵심기관 ‘뇌’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한창 성장하는 청소년 여러분에게 아침 식사는 이러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오전 시간 동안 영양 공급으로 두 뇌 회전에 영향을 줍니다. 농촌진흥청은 2002년 아침밥과 성적의 관련성 조사에서 ‘아침 식사를 한 학생이 수능성적(20점)이 높았다’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규칙적인 아침 식사는 학습능력과 학습태도 역시 향상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질병 예방 효과입니다. 아침밥을 통해 에

너지를 공급받은 신체는 체온을 높여 감기를 예방하는 한편, 규칙적인 호르몬을 분비시켜 신체리듬을 고르게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아침 식사는 정서의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아침을 거르게 되면 오전 내내 식욕 중추가 흥분하게 되고, 옆에 있는 감정 중추도 흥분하게 됩니다. 아침밥으로 먹는 탄수화물은 혈당량을 높여 생리적으로 안정 상태를 유지해 줍니다. 이밖에도 심장질환이나 비만예방, 대장암 예방 등의 효과가 있어 때문에 어쨌든 아침 식사는 비단 청소년 여러분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꼭 필요한 습관 일 것입니다.

### 혼자먹는 아침밥이 아니라 가족소통의 시간으로

이렇게 좋은 아침밥이지만 등교하기 바쁜 아침에 식사를 챙긴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압니다. 하지만 단 15분만 일찍 일어나 가족이 함께 식사한다면, 분명 투자한 시간 이상의 변화와 편익을 모두 체감할 것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명문가 집안에는 아침 식사에서 많은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케네디가(家)는 아침을 가족 토론의 장으로 삼아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고, 고(故) 정주영 회장 일가는 이른 아침 온 가족이 모여 식사하며 성실과 근면을 체득했다고 합니다. 비록 우리가 처음부터 아침 식사를 명문가처럼 하기는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부모님께 같이 아

침 식사를 하자고 제안해보면 어떨까요? 꼭 밥, 국, 반찬이 모두 놓인 식단일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한 시리얼이나 샐러드, 떡이나 과일, 혹은 전날 먹고 냉장고에 보관해둔 남은 음식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우리의 뇌에 하루를 시작할 영양을 공급한다는 일, 그리고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을 마련한다는 사실입니다. 평일에 부모님께서 아침을 챙겨주시면, 주말에는 부모님을 위해 여러분이 손수 차려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공부와 건강 그리고 가족 간의 화목을 도모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KYOBO 교보교육재단

2021 참사람 에세이 공모전

수상작 

## 당신도 누군가의 영웅입니다

글 \_ 참사람 독자 박성민

취업준비생이라면 누구나 겪는 설움이나 어려움 말고, 내가 생각하는 가장 힘든 점은 '대화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나 부스스한 차림으로 학교 도서관으로 향했고, 일명 '카공'도 주머니 사정이 그리 넉넉지 않은 학생에게겐 사치에 불과했다. 그래도 도서관 죽돌이로서 나름의 장점이랄까, 매일 앉는 자리가 있었고, 사석화한 적은 없어도 마치 내 전용석이 된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 얼른 취업해서 내 이름이 박힌 사무실 자리를 얻는 것이 목표여서인지, 그 비스무리한 체험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 좋았다.

하지만 이런 기분을 공유할 대상조차 없다는 것은, 또 이런저런 고민, 아니면 사소한 툴툴거림도 들어줄 상대가 없다는 것은 나에게 가장 큰 힘들이었다.

그날 또한 도서관으로 출근하는 나에게 수많은 날 중 하루였다. 내 자리는 아니지만 내 자리가 되어버린 도서관 좌석에, 허리가 뚱뚱한 바나나 우유가 놓여 있었다. 바나나 우유엔 포스트잇도 아닌, 찢어진 달력 종이가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었고, 그 종이에 투박한 글씨체로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 '학생, 공부하는 거 힘들지? 이거 먹고 힘내'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리고 조금 울었다. 그리고 나는 이 바나나 우유를 선물한 이를 알 것만 같았다. 이 도서관에서 '유일하게' 나와 매일 대화를 나누는 이가 있기 때문이다. 대화라기보단 짧은 인사였지만. 매일 아침 새벽같이 도서관에서 가면, 가장 먼저 반겨주는 이가 있다. 도서관의 회전문을 락스와 손걸레로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여사님이 계신다. 여사님과의 인사는, 내가 하루종일 도서관에 있으며 유일하게 입을 때는 순간이다. 워낙에 숫기없는 성격 탓에 '추우시죠', '고생하십니다' 같은 말을 마음속으로는 수없이 내뱉었지만, 언제나 '안녕하세요'로 끝나는 인사가 죄송했다.







그래도 여사님과 대화는 나에게 하루의 시작을 의미했다.

내 자리는 '이상'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전용석 아닌 전용석이 된 이후론 난 지우개똥을 잘 치우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 책상은 깨끗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여사님은 내가 오기 전 언제나 내 자리를 특별히 신경 써서 청소하신다고 했다. 사실 바나나 우유를 받은 전날은 유난히도 힘든 날이었다. 기업 인턴에 최종 탈락했기 때문이다. 물론 최종 탈락을 처음 겪는 것은 아니었지만, 워낙에 가고 싶었던 기업이기에 상실감은 더 컸고, 여사님은 어두운 내 얼굴을 보고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씀하셨다.

난 혼자인 줄 알았다. 도서관에서도 혼자였고,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터널과 같은 취업 준비의 과정에서 홀로 남겨져 있다고 생각했다.

여사님께선 매일 아침 도서관에 오는 수많은 학생들 중, 하루도 빠짐없이 여사님께 인사를 하는 학생은 내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다소 원망스러운 마음이 잠시 들긴 했지만, 나보다도 힘들고 예민한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알기에 그런 마음은 접어두기로 했다. 바나나 우유를 마시고, 그리고 그 이후의 여사님과의 대화는 내가 혼자가 아님을 알게 했다.

누군가는 나를 응원하고 있었고,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나를 걱정해주고 있었다. 여사님은 학내 일용직 청소 일을 하

고 계신다. 직업에 귀천은 없다지만, 상대적으로 대우나 업무환경이 좋은 직장은 아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다. 우리 학생들, 그리고 학교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스물네 살 청년에겐, 영웅이고, 참사람이다.

여사님께 여사님과의 이야기를 글로 적어도 되는지, 정중하게 여쭙았다. 그러자 여사님은 내게 '나한테 참사람은 매일 아침 내게 인사를 해줬던 학생 자네야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듣고 잠시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이 들었다. 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구나. 매일 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각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까운 것을 잊고 살기 마련이다. 좌절하고, 실패할 순 있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희망이고, 자부심일 수 있다. 여사님은 내게 영웅이고, 참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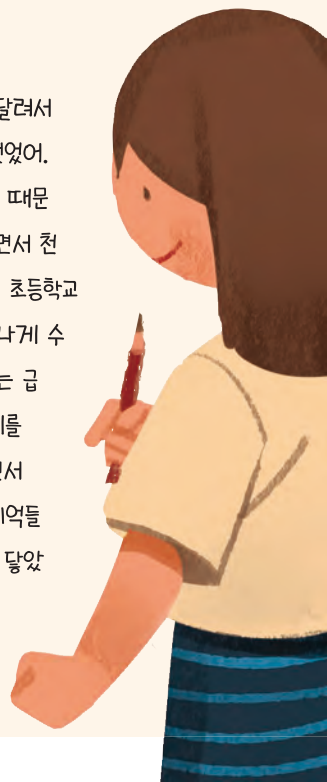


## 살기 위해 개를 훔칠 수 밖에 없었던 어린이, 조지나에게

글 \_ 고봉중고등학교 김OO

안녕? 조지나. 나는 네가 등장하는 책을 읽은 청소년 중 한 명이야. 처음에는 개를 훔친다는 유머스러운 제목에 끌려 단순한 호기심에 책을 읽게 되었는데, 읽다 보니 너무나도 가난한 네 삶과 내 어린 시절이 오버랩되면서 한 층 더 공감하며 읽을 수 있었어.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의존증이라는 중독증에 시달려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하루하루 힘든 나날들을 보냈었어. 옛말에 '엮힌 데 덮친 격'이란 말이 있지? 술 때문에도 힘든데 거기다가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나면서 천장이 내 눈높이에 오는 반지하로 이사도 가고, 초등학교 수련회 회비조차 버거워 친구들이 웃으며 신이 나게 수련회를 갈 시간에 하루에 만 원씩 밖에 못 쓰는 급식카드를 가지고 가서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버티기 힘든 날들을 보냈지. 이 책을 보면서 너의 일상처럼 비참하고 암담했던 나의 옛 기억들이 떠올라서 네 이야기가 더욱 내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아.





네가 이 책에서 개를 흠친 뒤 주인에게 용기 있게 고백을 하고 용서를 빈 행동 덕분에 지금까지 내가 했던 행동들을 다시 한 번 반성하는 기회가 되었고,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이렇게 편지를 써봐.

나는 이 책을 보면서 조지나 너의 행동이 참 인상 깊었어. 하루아침에 아빠가 사라지고 집세가 없어서 차에서 생활하게 되고, 평범하게 누려왔던 일상이 단 한 번에 무너졌을 때 초등학생인 너의 심정은 대체 어땠을까? 도무지 가슴이 안 되네. 아빠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을 테고, 학교에서 내주는 간단한 숙제조차 제 때 해갈 수 없고 새 옷, 새 신발은 꿈도 못 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네가 느꼈을 수치심과 슬픔을 같이 공감하고 느끼며 한줄 한줄 읽어 내려갔어. 글을 읽으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

이 책의 특별한 점은 이런 암담한 현실의 우울함에 휩싸여 절망하기보다는,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향해 발버둥을 치며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네 모습을 통해 독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점이야. 비록 내가 살아온 날들의 발자취가 순탄치 못해 결국 여기까지 왔지만, 이곳에서의 시간들을 항상 헛되이 보내지 않고 내 지나온 발자취에 대한 반성을 열심히 해서 조금 더 성숙해진 내가 될 거야. 그리고 앞으로 더욱 아름다운 성장을 해나가기 위해서 항상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고 책임감 있는 내가 되기 위해 노력할 거고, 남은 인생의 나날들을 멋지게 꾸며 나갈 수 있도록 할게!

무키 아저씨가 "때론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들의 발자취가 더 중요한 것이다" 라며 아주 멋진 명언을 남겼잖아. 조지나, 너도 앞으로는 네 인생의 지나온 발자취들을 항상 되돌아보며 이 교훈을 가슴 깊이 깨닫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나는 이 책을 보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어딘지 확실히 알게 되었어! 고마워 조지나! 반지하의 너무나도 어두웠던 세상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던 캄캄한 어린 시절의 나에게 꿈과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준 조지나! 앞으로는 너의 앞날에 아름다운 꽃길만이 가득 펼쳐질길 기도할게.

그 꽃길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안녕!

‘개를 흠치는 완벽한 방법’은 어떤 책?

떨어져도 뛰는 공처럼,

아파도 성장하는 조지나처럼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가족에게도 비밀과 갈등은 존재하지요. 하물며 아이를 지켜주어야 할 어른이 도망가 버리고, 남은 것 이라곤 동전 꾸러미뿐인 가족에겐 더욱 큰 고난의 서사가 펼쳐질 것이 뻔해 보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 조지나가 살아내야 하는 서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교 후에 집에 와보니 아빠는 사라졌고, 살고 있던 집에서도 쫓겨나게 되지요. 아이에게 부모는 정신적 안식처이고, 집은 물리적인 안식처입니다. 그 둘이 모두 사라져버린 조지나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보십시오. 참담하고 비극적이겠죠.

하지만 놀랍게도 조지나는 우울이나 절망에 빠져있기보다는 독특하고 기발한 방식으로 삶을 꾸러가려 노력합니다. 자동차에서 먹고 자고, 패스트푸드점에서 세수를 하면서도 그녀는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줄 압니다. 그런 점에서 조지나는 아무리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그것을 내 삶의 주된 이야기로 삼기를 거부하는 힘을 가진 아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며 조지나가 보여주는 놀라운 회복탄력성에 '전염'되기를 바라봅니다. 조지나처럼, 그리고 정현종 시인의 시 <떨어져도 뛰는 공처럼>의 한 구절처럼 우리 모두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공처럼, 탄력의 나라의 왕자처럼" 살아가야 할 테니까요.

문학에 대해 생각하고, 읽고, 쓰고, 가르치는 일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마음 속에는 문학으로 치유되기를 기다리는 내면아이가 숨어있다 믿습니다. 사람들 가슴 속에는 문학으로 타오르길 기다리는 불꽃이 깃들어 있다 믿습니다. 그들을 치유해주고 마침내 아름답게 빛나게 해줄 문학교육의 길을 계속 고민하고자 합니다.



**우 신 영**

인천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소설가



교육자이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김현수 교장선생님은 치유적 대안학교인 '성장학교 별'을 설립, 20년 간 헌신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자발성과 협력의 프레네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상처 입은 아이들과 교사들의 치유에 힘써온 봉천동 별지기, 김현수 교장선생님을 만나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청소년의 삶에 별이 된 사람, 성장학교 별 김현수 교장

반갑습니다. 교장선생님! 얼마 전 성장학교 별 20주년 후원의 밤을 잘 마치셨다고 들었습니다. 강산이 두 번 바뀌는 20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의 큰 별이 되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 성장학교 별 20주년 영상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dHmNYXBy9Jo>

2002년 '교육-돌봄-치유-영성'의 선순환을 꿈꾸며 치유적 대안학교 '성장학교 별'을 시작한지 벌써 20년이 지났군요. 건물 3층 한 칸에서 시작한 학교가 어느덧 건물 다섯 층과 옥상텃밭을 사용할 만큼 커졌고, 지금 인터뷰 장소인 아자라마 카페도 열었고, 청년들을 위한 꿈의 작업장도 운영하고 있으니 참 열심히 지냈구나 싶습니다. 이곳을 거쳐 간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릴 때마다 함께 울고 웃은 추억이 생각나 많이 감사드리고 새삼 감회가 새롭습니다.

20주년 행사를 보며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스스로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한 별학교 학생들이었어요. 학교를 향한 사랑과 진심이 담겨 있더라고요. 별처럼 빛나던 그분들의 성장스토리가 궁금합니다.

후원의 밤에서 축하연설을 한 전\*\*은 성장학교 별 졸업생이에요. 청년 김대중 연설대전 대상, 창작시 공모전 최우수상 등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사실 \*\*

은 별에 오기 전에는 말이 많은 게 단점이었던 아이였어요. 자기 관심사에 대해서만 말이 많아 친구들이 지겨워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별에서는 그 특징을 장점으로 키워주려고 노력했어요. \*\*의 얘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고 반응해주니 거부당한다는 느낌이 줄어들고 점점 자신감을 갖게 되었죠. 그렇게 관심 분야의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 현재 자랑스런 연설가가 되었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졸업생 포함 성장학교 별, 청년행복학교 별을 거쳐간 학생들이 260여명이나 된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몇 명 정도가 다니고 있나요?

현재는 30여명 정도가 재학 중이에요. 상근 교사는 5명이구요. 예전에는 비행청소년,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별 학교에 왔는데 지



금은 경계선 지능이나 가벼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주로 오는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픈 아이들, 공교육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학교입니다.

**마음이 아프거나 힘든 아이들도 성장학교 별에 오면 자기 본연의 힘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밑바탕엔 프레네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한 별의 수업 방식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프레네 교육은 자유, 협력, 현실과 연결된 교육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성장학교 별에서는 자유표현, 자유글쓰기, 몸을 통한 자유표현 등 자유와 관련된 활동이 많아요. 사실 '자유에 기초한 교육'이 말은 쉽지만 실행하기가 어렵지요. 다행히 별은 자발성에 기초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자 오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내고, 그것이 수용되고, 스스로 학교의 체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내가 주체다'란 자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자율과 협력이 성장의 비결인 셈이죠.

**교장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 학생, 교사, 부모 세 축이 협력해 커vey 신뢰를 쌓아온 내공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순탄하지만은 않으셨을 텐데요,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였는지요?**

2004년 위탁형 대안학교 지정을 추진하며 봉천동 인근 3층 건물을 구입했는데 주민들 반대로 쫓겨났어요. 불량한 아이들이 있으면 집값 떨어진다고 인근 주민들이 시위를 한 거죠. 대출 받아 구입한 건물을 급히 처분하느라 수억 원의 손해를 봤어요. 별지기 선생님들간에도 깊은 상처가 나기도 했고, 학교 운영 과정에 서로 다투는 일도 많습니다. 어찌하다 젊은 날 병을 얻어 먼저 다른 세상으로 간 동료 교사도 있었어요. 졸업생 중에서 삶이 고통스러워 세상을 먼저 떠난 친구들도 한 둘 있었어요.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별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저라고 이 힘든 길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수도 없이 많았죠. 그래도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첫째는 아이들의 변화, 둘째는 세상에 유일무이한 우리만의 공간이 있는 것, 셋째는 치유학교의 효시이자 모델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 이 세 가지 때문이에요. 주변 분들이 성장학교 별의 운명을 궁금해해요. '거기 아직 안 망했나?'하고 묻곤 하죠. (웃음) 지금껏 여러 분들의 도움으로 잘 버텨온 만큼 치유적인 공유문화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가겠습니다.

**성장학교 별이 추구해온 가치가 잘 자리잡아 치유의 문화가 널리 퍼졌으면 합니다. 이러한 문화가 자리잡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역할과 사회적 지원은 무엇일까요?**

사회가 선진국이 된다는 건, 다양성에 대한 개방이 넓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마다의 다른 속도를 인정하는 것이지요. 일정 경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똑같이 모두가 빨리 달리는 문화였는데 부작용이 많았어요. 속도에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은 뒤쳐지고 획일성을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죠. 자연이 아름다운 건 그 속에 수많은 색깔이 있기 때문이에요. 것처럼 다양한 속도와 방법으로 함께 살아가는 모습들이 더 넓게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해요. 아이들이 공부(성적)라는 한 가지 잣대로 평가 받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재능을 발휘해 다양한 속도로 살아가는 것이 인정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살맛나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결국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길이 되겠군요. 마지막으로 교장선생님의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청소년 학교에 이어 청년학교를 시작하고, 청년들의 일자리인 오색찬란 사업단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아자라마 카페, 청년쿠키, 별빛책방 세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조만간 2개를 오픈 해 오색찬란의 다섯 빛깔을 모두 완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돌봄의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하고 싶어요. 예전에는 마음이 아픈 청년들이 갈 시설이나 기관, 대학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는 발달지원센터를 포함해 많은 길이 열렸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유 네트워크를 만드는 노력이 서서히 빛을 발하지 않나 싶어요. 앞으로도 아이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 보다 좋은 세상을 나눠주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따돌림, 은둔형 외톨이 등 아픔을 겪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삶에 별이 되어 준 김현수 교장선생님. 내면의 가치와 관계의 성장을 통해 모두가 자기 인생의 별이 되도록 돕고 있는 그는 진정한 우리 시대의 참사람입니다. 김현수 교장선생님과 성장학교 별이 함께 만들어 갈 '교육-돌봄-치유-영성의 선순환 세상'을 함께 꿈꾸어 봅시다.*



# 눈이 녹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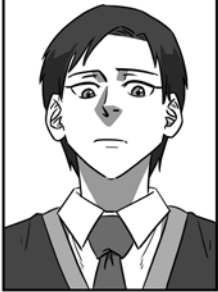
정용욱

조화롭지 못한 색깔이라면  
차라리 깔끔하게 지워 버리는 게 좋다.



한겨울, 눈으로 덮인 세계를 바라볼 때의  
설렘 때문에 나는 미술을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하얀 스케치북은 눈이 내린 날  
아침 같으니까...



하지만 눈은 녹는다.



그리고 깨끗한 스케치북을 제출했다가는...



난 불합격하게 되겠지.

「다름의 인정」 편

‘나와 다른 사람’은 주로 불편함의 대상이 됩니다. 사고방식이 다르거나, 표현방식이 다르거나, 남들은 하지 않는 질문을 던지는 친구들 말이죠. 하지만 그들 모두 그저 조금 다를 뿐이지 결코 틀린 사람들은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름의 충돌이야말로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성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임을 웹툰으로 전합니다.





너 학교 안와?  
 아, 나 지금 강원도 할머니 덕이야.  
 앵? 그래서 언제 오는데?  
 곧 갈거야~ ㅎ

애, 뭐하냐.



이러다가 사회 부적응자 되는 거 아냐?



지각 대장에...수업시간에는 특하면 출고...



어쩌다 이런 녀석과 짝궁이 된 건지....

저번 주 국어 시간에 '눈이 녹으면...' 뒤에 들어가면 좋을 말들 설문했었지?



몰이 된다.

지저분해진다.

몰이 된다.

봄이... 야, 이걸 책에 나온 거잖아.

또.. 몰이 된다.



말린 북어를 손질하는 다듬이질 소리가 들려온다.



할머니께서 겨울 동안 말린 북어를 항상 봄이 되면 다듬이로 손질하셨거든요.







정갈하지만 하얗기만 한 세상보다는,



조금 불편해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세상이 훨씬 아름다운 것 같다.





## 2022년 교보생명 희망다솜 장학생 면접심사 현장 스케치

재단은 지난 2월 17일 목요일과 18일 금요일, 이틀에 걸쳐 2022년 교보생명 희망다솜 장학생 면접심사를 시행했습니다. 제20기 희망다솜 장학생 공모는 전국에서 324명의 지원자가 모집되었습니다.

그 중 1차 서류심사 합격자 45명이 면접을 위해 재단을 방문했습니다. 면접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한 자리에 많은 인원이 모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틀에 나누어 철저한 방역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가까이는 수원, 멀게는 거제나 광주에서 올라와 준 학생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미래의 계획에 대하여 소통해주었고 최종적으로 22명의 제20기 신규 장학생이 선발되었습니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학기 당 200만원 내외의 장학금을 최대 6학기 동안 지급합니다.

재단은 희망다솜 장학사업을 통해 보육원 퇴소 및 저소득 가정 청년들이 참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2022년 ‘특!특!특!(talk) 가족소통캠프’ 참가가족 모집

**모집대상** 초등학교생 이상 자녀가 있는 가족(회차 당 10가족)

**캠프일시/장소**

구분	캠프일시	캠프장소
1차	4/16(토)~17(일)	국립횡성숲체원
2차	4/23(토)~24(일)	국립산림치유원
3차		국립춘천숲체원

**참가비** 1인 당 10,000원(예시: 4인 가족일 경우 40,000원)

**신청기간** 2022년 3월 21일(월)~27일(일)

**신청방법** 교보교육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참가신청



# 2021 청소년 그림 공모전

## '인생 한 컷' 당선작

### 내가 해야 하는 일

대상 \_ 구수창

자신이 맡은 일이자, 누군가는 꼭 해야만 하는 일을 묵묵히 실천하는 소방관을 참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 내가 되고 싶은 참된 나

대상 \_ 김서영

머리로는 지혜로운 생각을 하고, 귀로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입으로는 상대방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칭찬하고, 손으로는 이웃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발로는 정의와 도움의 손길에 달려갈 줄 아는 사람이 참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 마디의 힘

최우수상 \_ 김나영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을 위해 따뜻한 말을 남기는 사람들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저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들이 참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기는 한 마디 한 마디가 그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분

최우수상 \_ 이하은

6.25 참전 용사이신 할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잃고 받으신 건 모자 하나뿐, 하지만 당연히 해야하는 일이라 생각하며 매일 그 모자를 쓰시고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할아버지. 자신의 희생을 당연시하며 묵은 일을 웃으며 늘 열심히 하시는 이 할아버지가 제겐 제일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

최우수상 \_ 김민채

성실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나무를 가꿔 나가는 참사람의 모습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기에 마음이라는 생각을 담아 그렸습니다.



### 우리의 집, 지구를 지키는 영웅

최우수상 \_ 조서진

지구에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지구 안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담아내었고, 그 지구를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피를 흘려가며 감싸 안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을 표현했습니다.



# 참사람 36.5℃

교보교육재단이 생각하는 참사람은 정직, 성실한 성품을 갖추고  
끊임없는 자기성장을 추구하며 자리이타 실천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성숙한 인격체입니다